



‘세기적 만남’ 남·북·미 정상회동

글 전수영 기자

서로를 ‘꼬마 로켓맨’과 ‘노망난 늑은이’로 부르기도 했던 북미 두 정상이 이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분단국 비무장지대(DMZ)에서 세기적 만남을 가진 게 지난 6월 30일이다. 미국 국무부가 “정상회담(summit)도, 협상(negotiation)도 아니고 두 지도자의 만남(meeting)”이라며 단순 회동에 방점을 찍었지만, 의미 있는 역사적 만남임은 틀림없다.

트럼프 입장에서 우방국(한국)과 적대국(북한)의 접점인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은 깜짝 만남을 연출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최고의 장소였다. 이런 드라마 속 주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원들의 꼼꼼한 일 처리와 숨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뉴스를 전달하는 수행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경쟁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자 국내 한 일간지가 북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남·북·미 정상 회동(30일) 사진을 또 게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북·미 정상 회동 하루 만인 7월 1일 관련 사진 35장을 배포했다. 기사 가치가 높긴 하지만 동일 사안의 사진을 이를 연속 1면에 배치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 이유’가 사진 설명 뒷부분에 짙막하게 덧붙여졌다. ‘당시 남측 공동취재 기자들은 현장 통제로 인해 이 장면들을 영글에 담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사분계선에서의 근접 사진은 북한 기자들이 찍어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사진 외에는 없었다는 뜻이다.

‘남측 공동취재 기자’, ‘현장 통제’라는 용어를 풀어보며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남측 공동취재 기자단 청와대 출입사진기자단의 공동취재(pool) 기자(이하 풀 기자)를 말한다. 출입사진기자단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원사 가운데 통신사와 중앙지, 경제지 기자들로 구성된 출입 기자들을 이른다. 보통 대통령(VIP) 공개일정은 출입 기자들 가운데 정해진 풀 기자가 수행한다. 두 번째로 현장 통제다. 대통령은 직무 특성

상 철저한 경호 속에 행사에 참여한다. 행사장에서 VIP 동선(움직임)은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되고 통제된다. 그리고 그 동선 사이에 포토라인도 정해지지 마련이다. 그러나 이날은 사전에 동선과 포토라인 등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출됐고, 남측 풀 기자들은 군사정전위원회실 옆 군사분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북쪽으로 잠시 이동했다가 남측 자유의 집으로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짧은 시간에 그 혼잡스러움은 흔들리는 TV 영상 속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남·북·미 취재진과 경호원, 수행원 등이 한데 뒤엉켰고, 정상들의 동선을 확보하려는 경호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진 모양이다.

결국 국내 언론은 6월 30일 군사분계선 안에서 근접 취재를 하지 못했다. 하루 늦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발행했다. 사실 독자나 국민들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정황들이지만, 캡션 말미에 덧붙인 설명은 사진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보도사진의 완성성은 심플한 사진 설명과 그 디테일 속에 있다. ●